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88호 1판 (음력 10월 21일)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발사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시험발사체가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이송돼 기립해있다. 〈항우연 제공〉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결단만 남았다

지역 노동계 ‘협상 전권’ 광주시에 위임…다시 협의 나서
막판 타결 가능성 … 현대차 노조 반대·실적 부진 걸림돌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막판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이하 합의문)’에서 벗어나 협상안을 새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합의문은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심의 지역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 13일 작성된 것으로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현대차와의 기존 협약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27일 “투자유치추진단이 이날 새벽 광주 모처에서 시와 지역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회의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기존 합의문에 구애받지 않고 현대차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다시 협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대차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의 합의를 끌어낸 시 협상단은 국회 예산안 법정 시한 기간인 이번주 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주에 이어 26일 현대차와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문에 발목이 잡히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합의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광주시 협상단이 26일 밤 광주로 내려와 지역노동계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 협상단은 현대차와 협의 과정에서 합의문에 명시된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이번 현대차와의 협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키기위해서는 지역노동계를 다시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한 뒤 곧바로 상경해 현대차를 다시 만나 30일까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협상단은 노동계가 전폭적으로 합의해준 만큼 현대차와의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 부진, 협상 타결 시 파업을 예고한 현대차·기아차 노조 반발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현대차 역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강해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대차는 지금까지 광주시가 노동계와 마련한 협상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합의해준 만큼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사회통합형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금 전국적 관심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집중돼 있을 만큼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며, 국민의 염원이 절실하다”며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 모두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우주 자립’

우리나라 첫 독자 개발 누리호 시험발사체
오늘 오후 4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우주 궤도 진입 않고 600초 뒤 공해상 낙하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28일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에 사용될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시험발사체가 이번 발사에서 140초 이상 정상 연소했는지를 비행 성능 검증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KSLV-2)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3단형 우주발사체로 2021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27일 “이날 최종 리허설을 마무리하고 발사체를 발사체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했다”면서 “발사 당일 연료 주입을 마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오후 2시께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리허설은 실제 발사 상황을 가정하고 시험발사체를 발사대에 고정한 뒤 기능 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발사 예정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되고 있다.

발사 당일에는 발사 2시간 전에 추진제(연료)를 충전하고 비행종단 시스템 작동 준비 등의 절차를 밟는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발사 수초 전이라도 발사는 중단될 수 있다.

누리호 시험발사체는 독자 개발한 75t급 엔진의 실비행 검증 및 추진기관, 구조, 제어 등 서브시스템, 지상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발사할 예정이다. 시험발사체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후 우주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160여초 뒤 100㎞ 고도를 넘어 300여초께 최대 고도에 도달하며, 600여초 뒤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 사이 공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발사체는 지난달 25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16일 점검과정 중 추진제 가압계통 배관 연결부의 압력 감소 현상으로 이달 28일로 발사가 연기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학규 대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발언은 무책임”

바른미래당, 전폭 지지 약속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자’는 논의가 나온 데 대해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이날 오전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현장인 전남 함평 빛그린 산단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손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이룰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경제가 참 어렵다.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어렵고 사람 빠져나가는데 일자리를 제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관계가 어려워 기업이 투자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에서 임금을 줄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아이디어가 광주형 일자리”라며 “노동 여건이 나빠질까 봐 협상이 잘 안 되는데 노조도 양보하고 모든 협상 권한을 광주시에 맡긴다고 했으니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미래당은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광주에서 열릴 수영선수권대회의 국가 예산 지원을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취임 후 손 대표 첫 광주 방문길에는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과 광주에 지역구를 둔 김동철·박주선 의원도 동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전라도 1000년 인물 - 보성 나철
“을사오적 처단해야 나라 바로선다” ▶18면
광주 FC “어게인 2014”
오늘 대전과 준PO 벼랑끝 승부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